

【 주간포커스 】

최근 인플레이션 상승압력에 대한 소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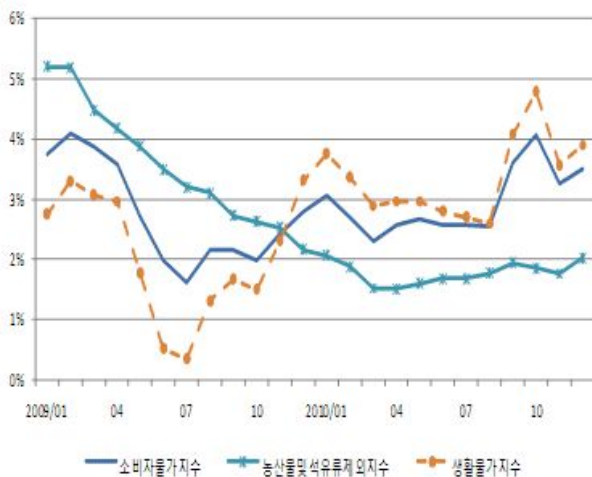
유진아 연구위원

2010년 12월 전년동월대비 소비자물가는 3.5%, 생활물가지수는 3.9% 상승하였고 국제 원자재 가격과 중국발 인플레이션이라는 공급측 요인과 과잉 유동성이라는 수요측 요인이 상존하고 있어 물가불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우려와 물가불안 요인이 인플레이션 기대심리 확산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미시적·거시적 차원에서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

□ 전년동월대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10년 3/4분기 이후 한국은행 물가안정 목표 3.0(±1)%의 중간값을 매월 상회하여 왔음¹⁾.

○ 2010년 12월에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전년동월대비 3.5%에 달하며, 특히 가게의 소비와 보다 밀접한 관계가 있는 생활물가지수도 3.9%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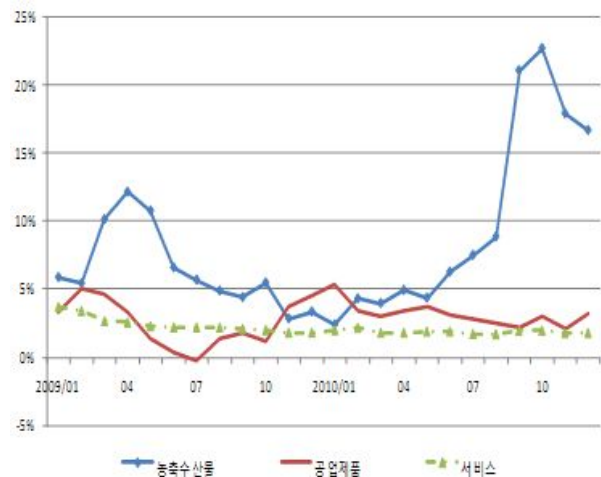
<표 1> 물가지수 상승률 추이



주: 전년동기 대비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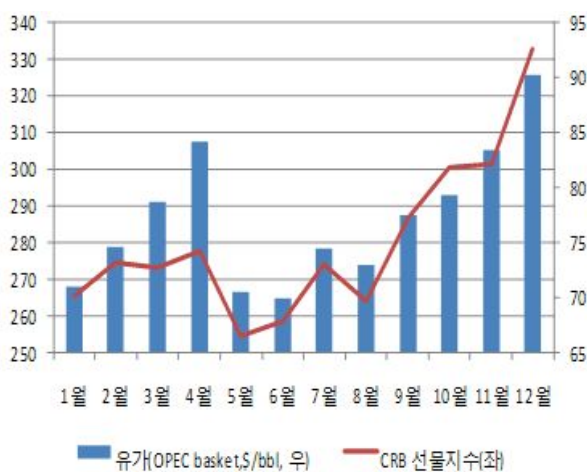
<표 2> 품목별 물가상승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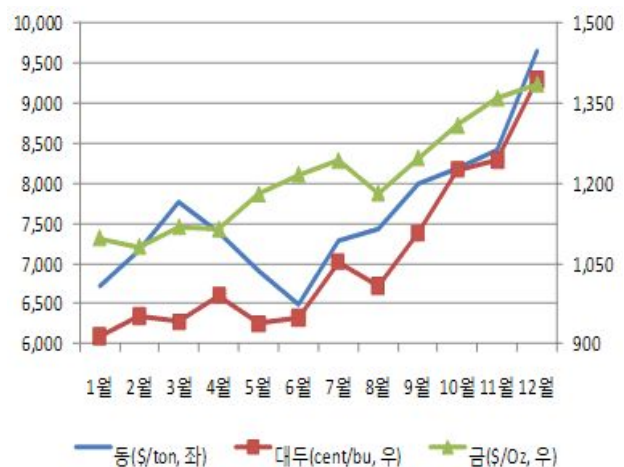
1) 인플레이션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신흥시장국의 공통된 문제이다. IMF(2011.1)은 신흥시장국의 2010년 물가가 6.3% 상승하였고 2011년에도 6%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는 등 인플레이션의 경착륙 가능성을 경고함.

- 1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3.5%)에 대한 기여도를 보면 최근의 이상 기후와 가축 전염병 등으로 농축수산물의 기여도(1.40%p)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더욱이 다음과 같이 국제원자재 및 곡물가격 상승, 중국발 인플레이션, 과잉유동성 등 물가 상승을 자극해온 요인이 여전히 잠재해 있어 물가불안에 대한 우려가 확산
- 한국은행 총재도 지난 1월 19일 한국금융연구원 초청 강연에서 성장보다 물가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는 우려를 표시
- 첫째, 원유, 농산물 등 국제원자재 가격이 상승 추세를 지속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우리나라 서비스 및 제조업 제품의 가격까지 불안해질 가능성이 높음.
- 국제유가(OPEC 기준)는 2010년 1월 71달러/배럴에서 2010년 12월 90달러/배럴로 27% 상승
 - 동, 대두 및 금의 경우에도 같은 기간 각각 43%, 52%, 31% 상승
- 러시아, 호주, 남미지역 등의 세계 곡물 및 금속 공급지역에 이상 기후 현상이 발생하면서 공급이 감소
 - 칠레 및 인도네시아에 지진과 폭우피해가 발생하면서 금속 공급이 축소
 - 러시아, 호주 및 남미 지역의 가뭄으로 인하여 곡물생산량 감소

<표 3> CRB 선물지수 및 국제유가(2010년 중)



<표 4> 원자재 가격추이(2010년 중)



자료: 한국은행

□ 둘째, 우리나라 전체 수입중 중국의 비중이 17%(2010년 기준)를 차지하고 있어 중국의 높은 물가상승이 우리나라의 물가에 전이될 가능성도 높음.

- 중국 소비자물가상승률이 1%p 높아지면 우리나라 소비자물가상승률이 0.06%p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국제유가 상승이 우리나라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의 3배²⁾
- 중국은 최근 내수성장 및 국제자본 유입 등의 총수요 압력과 더불어 임금상승 등 공급측면에서도 인플레이션 압력이 존재하여 2010년 11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전년동월대비 5.1%에 달함³⁾.
 - 소매판매가 2010년 18.5% 증가
 - 대부분의 지방정부는 2010년에 최저임금을 10~30% 인상하였고, 최근 5년간 평균 임금상승률도 15.4%를 기록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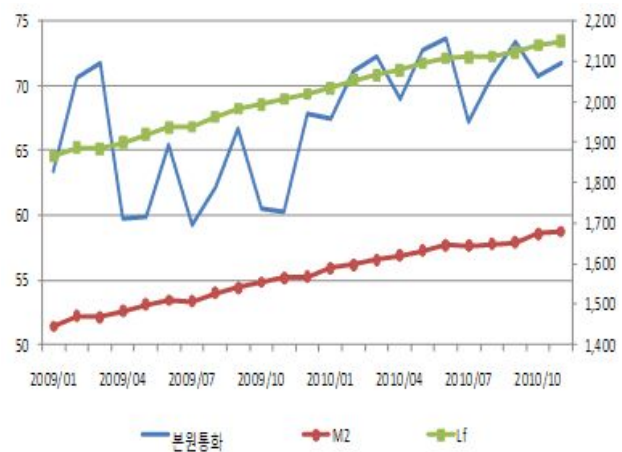
□ 셋째, 2010년 경제회복세가 다소 둔화되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수요압력은 다소 완화되었지만 금융위기 이후 크게 증가한 과잉 유동성이 잠재적인 물가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표 5> 경기순환 동행지수 추이



자료: 한국은행

<표 6> 통화량 추이



- 총수요 압력의 대용변수로 사용되는 경기순환 동행지수의 경우 2010년 7월에 정점을 찍고 하락하는 추이를 보이면서 10월부터 총수요가 다소 위축

2) 한국은행, 현대경제연구원(2011.1) '연초 물가상승 배경과 대책', 재인용

3) 한국은행 해외경제포커스 2011-2

4) 산은경제연구소, 국제경제팀(2011.1) "인플레이션 압력에 직면한 중국경제", China Issue

- 그러나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의 경제성장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011년에는 물가에 대한 수요압력이 다시 높아질 것으로 보임⁵⁾.
- o M2 및 Lf 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물가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음.

□ 이러한 물가상승 요인이 기대 인플레이션 심리 확산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미시적·거시적인 차원에서의 선제적이고도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해 보임. KiRi

5) IMF(2011.1)은 미국 및 일본의 2011년 경제성장률을 상향 조정